

“아속지변(雅俗之辯)”의 이면: 명대 척독(尺牘) 선본(選本)에서 문학 담론의 민간화 전환

량푸리 (간쑤 란저우, 730000)

요약

명대 척독 선본의 편찬과 유행은 전통 문학 담화 체계가 사대부 정영 계층에서 민간 사회로 심각하게 전향했음을 표지한다. 왕세정의 《척독청재》는 "청"을 취지로 하여 역대 척독의 집선을 통해 복고와 아완을 지향하는 서사 범식을 구축했다. 명말 산인 집단을 대표로 편선된 척독 선본에는 상가 왕래, 시정 응수, 가사 부탁 등 서민 생활 서사가 대량 수록되어 척독 문체가 사인 수창의 아예에서 사회 교왕의 실용 도구로 전화했다. 동시에 편찬자는 자사 해석, 척독 평점, 척독 활투 찬사 등 조치를 통해 실용적 서사 이념을 창도하여 문학 언어의 통속화, 구어화로의 선변을 추동했다. 이런 전향은 만명 상품 경제 발흥 하의 시민 문화 굴기의 투사일 뿐 아니라 문학 권력 하이 과정에서 민간 담화 역량의 성장을 절사한다. 그러나 청대 건륭조가 추행한 문화 정치 정책, 특히 민간 척독 선본에 대한 금훼와 규훈은 이 전향의 단절을 조성했다. 조정은 《사고전서》 편찬을 통해 "비리"한 척독 텍스트를 계통적으로 청리하며 그것이 "문격비약" "유괴아정"하다고 척하여 최종적으로 문학 담화권이 재도 권력 중심으로 취렴하게 했다.

핵심어: 《척독청재》; 척독 선본; 문학 담화; 문화 하이

왕세정 《척독청재》의 선문과 그 특징에 관해 학계는 이미 적지 않은 연구가 있으며, 모두 그것이 척독 지남류의 통속 독물이 아니라 엄근하고 자성 체계의 문장 범본이며, 왕세정이 이를 통해 복고 서독사를 건립하기를 희망했다고 여긴다. 명대 제1부 척독 선본으로서 《척독청재》는 후대 척독 총집의 편찬을 위해 전범을 확립했다. 그러나 명 중후기 사회 소비 문화의 발전, 사상 제한의 약화에 따라 척독 선본은 새로운, 시민 계급의 소비 특징을 정현했다. 이 점에 관해 전배 학자들이 이미 관련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아사미 요지는 명대 고급 척독 총집의 편찬이 반영하는 것은 중만기 전체 지식 계층의 변화라고 여겼고, 진신은 척독 총집이 명대 중후기 사회 경제와 문화 소비의 쌍중 변영을 반영했다고 여겼다.

척독은 일상생활을 많이 쓰고 사사에 많이 속하는데, 만명인은 "여면담"이라 칭했다. 명 중기 이후 일부 문인은 점차 척독이 사회 중하층의 막료 좌리 내지 보통 대중의 사회 교제에서의 중요 기능을 의식하고, 그것이 전통 유가 가치관을 충격하는 이기이며 사회 층급, 문화의 다원 구건과 유학 변연화를 체현한다고 여겼다. 그렇다면 명대 전후기 척독 선본은 어떤 차별을 정현하는가? 본문은 척독의 종합 특성을 결합하여 명대 전후기 척독 선본이 아속 간의 전향과 배후에 정현된 담화권의 전향을 논술하여 명대 척독 선본에 대한 더 심입한 인식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1. 복고와 입범: 왕세정 《척독청재》의 편찬 목적

"척독"이란 단어는 비교적 일찍 나타났지만, 명대에 이르러서야 전문적인 척독 선집이 나타났다. 척독의 명칭은 한대에 시작되었다. 현유 문헌 사료의 고증에 따르면, "척독"이란 단어는 최초로 《사기·편작창공열전》 후의 태사공전찬 "제영통척독, 부득이후녕"에 나타났다. 춘추 이래로 척독 문헌이 날로 증가하여 남북조부터 편찬된 문장 총집부터 척독이 일종의 문장 체재로서 점차 단독적인 문헌 유형이 되었다.

남조 양 소통이 편한 《문선》은 현존 최초의 고대 문장 총집으로, 그중 수록된 문장 체제는 부, 시, 소, 칠, 조, 책, 령, 교, 문, 표, 상서, 계, 탄사, 전, 주기, 서 등 38류가 있는데, 그중 "서"류에는 《이소경답소무서일수》 등 서기가 있어 척독 전류이며, 기타 표, 상서, 계, 탄사, 전, 주기 등 문장 체제는 척독과 같거나 척독류이다. 《문선》 일서

의 체례 편배는 척독 체제가 총집 목록에 전류를 설립하는 선하를 열었다.

당송 이강, 척독도 많이 별집에 편입되었다. 예를 들어 당대 유우석의 문집 《유빈객 문집》에는 서, 계 등 문장 체제가 있다. 또 《구양문충공집》에서는 일찍이 척독류를 서계와 서간류로 나누었는데, 이는 척독 문헌이 별집 목록에 전류를 설립하는 선하를 열었다. 명대 이전에 척독은 왕왕 총집과 별집에 편입되었고 스스로 일집이 되는 것이 적었다. 따라서 명대 이전에 역대 군서 서목에는 아직 척독을 위해 단독 설류한 자가 없었다. 명대부터 척독 전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서목에 반영되어 척독 류목이 있게 되었다. 명대 가정 연간 고유가 편한 《백천서지》에서 집부 하에 "계찰"류를 세분했는데, 이는 비교적 일찍 척독 문헌을 위해 전류를 설립한 군서 목록이다.

명대 중엽 이후 박학 사조의 영향을 받아 학자들은 많이 "박학이명도, 명도이치용"을 창행하여 지식의 전면성과 풍부성을 강조하여 당시의 공소 학풍을 진작시켰다. 왕세정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작품에서 여러 차례 "박식"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언주사료》에는 "해박창달"이라고 썼다. 관련 자료의 수집 증보는 관련 작품의 성서 과정에 집중적으로 반영되는데, 부분 작품 예를 들어 《척독청재》는 전후 세 차례 증보하여 10여 년을 거쳐서야 최종 성서되었다. 왕세정이 가정 37년(1558)에 집성하고 융경 5년(1571)에 속집한 《척독청재》는 그가 전문적으로 학문하는 자를 위해 편사한 일부 저작이다.

왕세정의 《척독청재》는 양신의 《적독청재》를 증보한 기초 위에 성서되었는데, 이 책은 융경 5년(1571)에 편성되어 초편 간각으로부터 이미 13년이 되었다. 부단히 증보한 이유에 대해 왕세정은 《중각척독청재소서》에서 "시시각유과루"라고 자서했다. 이 책의 성서 과정에 관해 그는 《척독청재서》에 썼다: "서촉 양용수는 젊어서 금마에서 노닐고 만년에 벽계에서 수자리 살았는데, 부제의 옥호를 기울여... 이 편을 모아 모두 11권이 되니 《척독청재》라 명했다... 여전히 증용을 가하여 당씨부터 지금까지 사근아순한 것도 뒤에 부했으니 다시 24권이 되어 독중에 장했다." 양신 저작을 기초로 당대부터 명대까지의 척독을 증집하여 24권을 성서했다.

그 후 왕세정은 여전히 부단히 수집 증보하여 최종 60권과 보유 1권을 성서했다: "이 책은 대개 양신 원본을 인하여 증수한 것으로, 신이 수록한 것은 좌사부터 육조까지 공 8권이고, 세정이 익하여 28권이 되었다. 다시 당대부터 명까지의 작을 채하여

통 60권이 되고, 또 패사를 방수하여 양, 수 이전 일작 40여 조를 득하여 보유 1권이 되었다." 보유 1권의 성서 동기에 대해 그는 《척독보유서》에서 자서했다: "60권 각성 후 여전히 '의유미진, 방수패사, 부득사십조'하여 한원제 《사첩여》부터 효경태자 《답형문위》까지 차가달도 '수씨지전, 무부유괘'했다." 양신 《적독청재》 11권에서 왕세정 《척독청재》 60권과 보유 1권까지, 왕세정은 전서를 통계하여 "범일천칠백오십일조, 일십삼만일천삼백육십이언, 전후득육십권"으로, 양신 원편에 비해 "십익기구"이고, 왕씨 초각에 비해서도 이미 "십익기록"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스스로 "한박"이라 칭할 만하다고 여겼다.

지식의 전면 풍부성에 의외에도 왕세정은 더욱 지식의 정준도를 강조하여 "성일가 지언"의 목적에 달하기를 기했다. 예를 들어 그가 《예원치언》의 창작 원기를 교대할 때 말했다: "여독서창《답예록》, 상고기지론의, 독괴불급근체, 복습자지무문야. 양용수수유향, 구닉적, 이비람핵, 여이유지장이... 수송인지진편, 첩자인매. 독엄씨일서, 차불패지, 연왕왕근사이미핵, 여고소소가... 여소이육위일가언자, 이보삼씨지미비자이이."(《예원치언·서언》) 무독유우, 가정 37년(1558), 왕세정은 양신 《적독청재》 일서를 수정하고 증집했는데, 이번 수정의 연유와 정황에 대해 왕세정은 자서의 서사 방식으로 간요한 설명을 했다: "객유재시여십지지지제, 석기시대, 명씨왕왕비오, 소루전적역불위소. 내초위정정, 잉가증증, 급자당씨홀금, 사근아순역부어후, 경위이십사권, 장지릉증." 이번의 수정과 증집은 왕세정이 양신 《적독청재》 원서의 지오가 너무 많고 책에 수록된 내용이 광범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여겨 그것을 완선하려 시도한 일종의 시도였다.

2. 전범과 일용: 명 중후기 척독 선본의 생활 서사

명말 척독 문체가 성행한 것은 사회 각 계층이 공동 참여한 결과지만, 그중 주도 작용을 발휘한 것은 가정, 만력 연간 이래 활약한 산인 군체였다. 풍몽룡, 진계유, 왕치등을 대표로 하는 산인은 명말 척독 선본의 출판에서 돌출한 표현을 하여 중시를 받았다. 명말 산인 척독 편집은 왕치등을 대표로 한다. 《열조시집소전》은 그를 평가하여 "오문은 문대조가 몰한 후 풍아지도가 미유소귀했는데, 백곡(왕치등)이 진화계

수하고 허고취생하여 사한지석을 천한 자가 30여 년이었다"고 했으니, 문정명 이후의 오문 문단 영수였다.

왕치등의 척독은 영향이 매우 컸고, 생전에 이미 전집으로 결성하여 출판했다. 예를 들어 《모야집》 《신전고금명공척독휘편선주》 등 척독 선본이다. 그중 또 《모야집》이 각인이 최다하고 유포가 최광하며 명기가 최대했다: "강음 육문숙이 류집하여 수지목하고 속명 《모야》라 하니, 서심실야. 천신선생, 장봉모사배가 함회자기지하니 업이성파의." 전후로 《모야집》 10권, 《모야을집》 10권과 《모야병집》 10권 등 선본을 출판하여 당시 선본 유행의 정황을 정현했다.

이외에 도류는 또 《모야집》에 평석을 가하여 종신당이 간각하여 《도선생평석모야집》을 이루었다. 만명부터 청초까지 척독 선본이 층출불궁했지만 전문으로 당대 척독에 주를 단 것은 극소여서 이 책의 유행을 족히 볼 수 있다. 동시기의 후철자 영수 왕세정은 일찍이 《모야집》을 증정받지 못해 두 차례 척독을 기하여 문난한 일사가 있었다: "그 어운: 《모야집》이 성행하여 시사간 지위귀하나 이견혜자가 장무불욕불녕척독소진야. 유념지." "전가중성행《모야집》, 내불이상기, 무려중랑담진야. 일소."는 왕치등 척독집이 성행한 정형을 측면에서 반영했다.

《모야집》 간각 출판의 원인에 대해 왕치등은 서무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했다: "《모야》가 수유갑, 을양집이 있으니 불과 사중 판죽을 공하는 것이지 모야가 아니라 성모리이다." 이는 일정 정도에서 중만명 척독 선본 출판의 목적을 도출했는데, 모리를 위해 척독 선본을 출판하는 것이니 이는 일정 정도에서 시장의 수요를 영합해야 하고 시민 계층의 수구를 체현한다.

선본은 일상생활의 수요에 안조하여 각 부분을 부동한 유별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신전고금명공척독휘편선주》 일서는 부동한 실용 장경에 근거하여 척독을 청소류, 사사류, 수사류, 경하류 등 일용 유별로 나누었다. 진계유가 증보한 《신전증보교정인기웅선생척독쌍어》 일서는 통문류, 감사류, 차대류, 가서류 등 유별로 나누었다.

그리고 상응하는 찬사 모판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입계에 관해 진계유는 《척독쌍어》에 《당전계》와 《당옥계》 격식을 재하여 원칙성있게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했다. 실천에서 입계는 또 입전계인과 중견인의 서압을 강조했다. 험세와 과할은 법률이 강구한 필경 정서인데, 여불세계면 형벌을 담당할 외에 "잉추전택개전일반입관"했

다. 그리고 또 책에 비주를 부하여 계약 합동 사용 규칙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동본 협약》은 "금공무빙, 입차협약, 일양이지, 위후조용"을 주명하여 직접 시민이 경제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도했다.

종성, 풍몽룡이 편찬한 《여면담》은 또 서신 왕래의 기출과 회복 모판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하세공》의 경하 모판은: "집사이백련정금, 발적성균, 성대재만, 성지회야. 표차치명천부, 불유어령수일방호, 세이이칭." 답복 모판은 "자괴록록용재, 불능간시 석갈. 금도소취, 문진벽수, 안망천부책명여오백영웅쟁선야. 부참치사."이다.

보통 백성의 열독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책의 척독은 문언을 주로 하지만 대량으로 천근 문언과 구어화 표달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정랑답서》에서 "기득거년춘야, 여경악수"는 언어가 직백생동하여 시정 대화에 접근하고 자못 지금의 백화문 같다. 심지어 부분 서신은 이어, 속언으로 점철했다. 예를 들어 《신전증보교정인기웅선생척독쌍어》 해석류 《권인쟁식》에서 "안지비가조, 자, 시위유방호? 자작량무락인권투"는 유방상쟁, 어웅득리의 속어를 차용하여 언어가 해해하고 시민 통속 심미에 부합한다.

명대 상업의 발전에 따라 상인 군체가 일점 활약하기 시작했다. 선본에서 상업 발전과 상인 수요를 영합하기 위해 전설 상가 왕래 유관 류목을 설하여 고용 계약서, 매매 계약서 등을 수록하여 상인 사교 합법성을 승인하고 그 사회 지위 제승을 반영했다. 또 적지 않은 상업 정경과 유관한 척독을 수록했다. 예를 들어 《여면담》의 《하인개포》, 《하개미포》, 《하개잡화포》 등 하신은 "차마낙양가, 리인리기", "도주의돈, 지일가기의" 등 사를 사용하여 상업 번영, 유리가도의 경상을 전현했다. 심지어 또 《하기유위상》이라는 상인 계층의 심미 취미에 계합하는 축하 서신도 나타났다. 서신 모판의 전파를 통해 시민 계층은 일투 사대부와 구별되는 담화 체계를 형성했다. 예를 들어 상인의 처를 "보권"이라 칭하고 점포를 "보호"라 칭하여 시민 계층의 소리를 발했다.

3. 사림에서 시정으로: 중만명 서의의 민간 서사

서의는 고명사의로 사신의 범본이다. 《수서·경적지》와 《신당서·예문지》에서 모두 사부 의주류에 귀입되었다. 가견 서의와 예는 호위표리한다: "서의"는 표로 예의 재체와 구상이고; "예"는 리로 서의의 내핵과 의귀다. 미국 학자 스트렝(Frederick J.

Streng)이 말한 것처럼 예는 "적의한 사회 행위로 단지 사회의 습관일 뿐 아니라 또한 일체 중에 심장이 있는 생활 법칙의 사회 표현"이며, 서사 영역의 예는 서의로 표현된다.

위진부터 수당 재도 명대 서의까지 작가군은 명백한 변화가 발생했다: 위진남북조 시기 예법은 사족이 주재하는 문제 사회에 중시되었는데, 이른바 사족자는 그 초병이 전문 그 선대의 고관후록을 그 유일한 표징으로 삼지 않고 실로 가학과 예법 등으로 기타 제성과 표이했다. 고로 위진남북조 시기의 길흥 서의는 대도 고문 세족의 수에 서 나왔다. 육조 서의 예법은 지위, 신분을 현시하고 혈연 관계를 뉴대로 서의의 서사 권리를 세가 대족 수중에 공제했다.

당대 특히 당조 중후기에 이르러 서의 작가군에 변화가 발생했는데, 주요하게는 관위 고저를 준칙으로 서의를 찬사했다. 예를 들어 당 전기 내지 중당 길흥 서의의 작자 여노장용, 두우진, 정여경 등은 대다 구족 인사나 중앙 관료였다. 세족 출신의 대관료 정여경도 이미 "채당사서길흥서소지식잡이당시가인지례"였다.

명대 중후기 방간에 점차 척독 총집을 편간하는 풍상이 형성되었고, 척독 편간으로 자성 특색의 서방과 선가가 나타났다. 금릉 서방 차서루가 그중 대표인데, 차서루는 출판 활동을 경영한 지 거의 30년이고 편간한 다류 서적이 약 40종이며, 그중 척독 선본의 편간이 일반 이상을 점했다. 이 서방 편집 활동에 참여한 자가 삼사십 인에 달했는데, 장헌충은 그를 "차서루 군체"라 칭했다. 이 군체는 선명한 "저층" 색채를 가져 다수 연구자에게 "저층 문인" "저층 문사"라 칭해졌다. 이때의 척독 선본은 편찬자 주관 사상, 동기 및 민간 일용 쌍향 호동의 수요를 받아 강렬한 모판화 활투 특징을 정현하여 평민 대중에게 찬사 서신의 범식을 제공했다.

서의 작가군의 변화는 명백한 문화 하이 특징을 정현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사상의 개방과 포용이다. 명 중후기 출판의 상업화는 그것이 대중 전파의 모종 속성을 구비하게 하여 대중 문화의 흥기와 전파를 인발하고 2천여 년 래 정영 문화가 절대 패권 지위에 거한 일원화, 단선성의 문화 생태 모식을 타파하여 문화의 다원화와 지식의 하이를 촉진하여 명 중후기가 "주류 문화"(정주리학을 주체로), "비주류 문화"(계몽 사조를 주체로)와 "시민 문화" 삼족정립, 다원 공존의 문화 생태 격국

을 형성하게 했다. 동시에 전통 사민설의 격국이 타파되었다. 예를 들어 귀유광은 "고자사민이업, 지어후세사여농상상상혼"이라고 썼다.

둘째는 명 중후기 상업 발전, 특히 출판업의 발전으로 대비량의 도서 출판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명 일대는 중국 서적 편찬 간인의 정성 시기로 수량지다, 공예지교, 형제지다양은 명대를 능가하는 것이 없었다. 그 편찬 간인 서적은 관사지분, 번부방사지별이 있고; 그 각서 구역지광범은 대강남북에 편급했고 또 다수 지역성 각서 중심을 형성했으며; 그 인제 공예지변화다양도 역시 전대 임하 일조가 필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황우계 《천경당서목》에 기재된 도서는 명대를 주로 하는데, 전서는 경사자집에 안조하여 분류하여 공 32권이고 수서 15600종이다. 《사고전서총목제요》는 이 책에 대해 극히 높이 평가하여 "고명대저작자, 종이시서위가거, 소이흠정《명사·예문지》파채록지"라고 여겼다. 《명사·예문지》 소재 도서 5033종은 이 책이 단지 명대인의 저작만 수록하고 기타 조대 서목이 명대에 간행 출판된 것은 섭급하지 않았지만 명대 저술지성은 그중에서 일이를 규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고적선본서목》은 공 고적 56790종을 수록했는데, 그중 명판서가 23042종이고; 근인 두신부가 편찬한 《명대판각종록》에는 도서 7876종을 수록했다. 총체적으로 명대 통치자의 출판 관리는 상대적으로 경송하여 우리나라 출판사상 활약 시기가 나타나게 했다. 명대 출판 도서는 총공 3.5만 종 좌우로 수량지다는 기타 조대가 필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은 상업 환경에서 사회 대중 교왕의 수요다. 척독 선본이 대량 간행되고 상인 서신이 점차 선본의 중요 유별이 되어 상인과 수공업자를 위해 서신을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 선본의 중요 내용이 되었다. 고대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우역 계통은 단지 소부분 사람만 사용했기 때문에 상인이 상년 재외 경상하면 그들은 단지 서신을 통해 가인, 봉우와 소통할 수 있었다.

4. 누가 말하는가? 지식과 권리의 공모가 결정한 담화

협의의 담화권은 주체가 옹유한 설화권을 가리키고, 광의의 담화권은 푸코와 부르

디외가 말한 "권력 담화", "권력 언어"를 가리킨다. 담화권 배후에 절사되는 것은 일종 권력의 비교이고 일종 권력의 권형이므로 매 일차 담화의 표달은 모두 일차 권력 행위로 시위된다. 그리고 이런 담화의 표달 혹은 권력의 행사는 모두 일종 경향력을 공유하고 사회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산생한다.

커류거 《장물: 조기현대중국의물질문화여사회상황》 일서의 "중심 명제"는 "자16세기 중엽부터 1644년 명조 멸망의 이단 역사 시기 내 물질 세계의 산품과 장악 권리의 사회 사신이 인동한 사회 등급 간의 관계를 담한다. 이는 사신 계층이 특별히 관주한 문제다... 이 부분은 호상 영향의 사회 활동을 통해 실현되고; 또 일부분은 사신 권자 내 출판, 소매와 유통의 텍스트 생산이 반영해낸다"는 것이다.

문학 텍스트는 관방 담화의 삼투를 받을 뿐 아니라 사회 생활, 시대 도향의 제약도 받는다. 문학 비평과 전파 영역에서 선본은 척독 문체 비평과 전파의 주요 방식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선가와 그 교유권이 상호 표방하고 자찬 작품 비평과 전파 과정에 개입하는 문화 책략이 되어 척독이 인차 풍부한 의함을 부여받았다. 척독 선본을 "담화권 전장"으로 시위하여 명대 문학 권리가 묘당(관방)에서 문인 집단, 상업 출판 내지 지방 사회로의 하침과 분화를 제시한다.

명초 주원장이 창설한 일대 예제는 의, 식, 주, 행 및 사교 예의 제방면에서 일대 생활 준칙을 확립했는데, 서신 사작의 격식에 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홍무 5년 12월 선포했다: "상위예부신왈: '금인서찰, 다칭'돈수''재배''백배', 개비실례. 기정위 의식, 범치서어존자, 칭'단숙봉서', 답즉칭'단숙봉복'; 평교자, 즉칭'봉서''봉복'; 상지 여하, 즉칭'서기''서답'. '비유여존장, 즉왈'가서경복'; 존장여비유, 즉왈'서부모인'. 무득람용'돈수''재배'자양, 이괴례체.'" 사인 왕래 서신에서 "돈수" "백배" 등 공경 투 어 사용을 금지하여 그 "비례야"라고 여겼다. 이 정책은 국가 제도의 층면에서 시민 백성이 사인 통신 방면에서 관련 예의 규범을 사용하는 도경을 단절하여 서신지례를 소수인 수중에 공제하고 유통 범위를 소부분 영역에 국한시켰다.

왕세정 《척독청재》는 명대 제1부 통대류 척독 선본으로서 이 책은 "청"을 특색으로 하고 아완 복고를 편찬 원칙으로 하여 일부 후세 학문자의 범본을 타조하기를 치려했지 광대 시민 계층을 위해 서신의 사작 모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명 중후기 척독 선본과 불일양한 풍모를 정현했다. 그 대표하는 것은 상층 정영 사대부의 심미

풍상이다.

피에르 부르디외는 "품미는 계급 차이를 반영할 뿐 아니라 일종의 공구로서 이런 차이를 건립하고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차이 건립은 사회 각색을 분별하는 기능을 구유할 뿐 아니라 규칙의 제정자로 하여금 그중에서 획리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왕세정은 《고불고록》에서 말했다: "화당중송, 이삼십년홀중원인, 내지예찬이체심주, 개즉증습배... 대저오인람상, 이휘인도지." 사대부 집단이 문화 품위 확정에서의 주도 지위를 전석했다. 고대 사회에서 서화 작품은 일방면 관상 예술품이지만 더 중요한 방면은 문인 사대부가 아완, 격조를 표방하는 공구로 사용되었다.

명대 중후기 척독 선본 및 일용 류서의 척독 부분은 매우 큰 일부분도 시정 대중을 위해 사신 지도를 제공했다. 명대의 교육은 비록 매우 발달했고 백성 식자율이 유소 제고했지만 대다수 시민 백성의 문화 수평은 유한하여 단지 조통 문묵일 뿐이었다. 이런 정황에서 작자는 반드시 최대한도로 열독 장애를 감소해야 했다. 기어차, 매우 많은 척독 정식이 모두 대량의 설명 주석이 있다.

대목강은 민예하게 이 미묘한 변화를 포착했는데, 그는 《명청문인의소품세계》 일서에서 썼다: "문인 취미는 중국 고래로 있지만 이왕은 일직 귀족이나 사대부 문화의 '고고산정'에 처했다; 이도 명말 이류 고아 생활 지남(안: 진계유 편찬의 보급 문인 취미의 통속 서적을 지)이 봉기하여 더 광범한 사회 계층에서 보급 개래하여 문인 아취가 시정 향맥에 미만했다." 문화 하이를 체현하여 시민이 명 중후 시대 낭조에서 자기의 소리를 발했다.

그러나 명대 척독 선본의 풍부한 민간 담화는 청대에 계통성 단열을 조우했다. 건륭조는 사고전서 편수를 차하여 계통적으로 명대 척독의 "이질" 민간 담화를 청제하고 척독 문체를 정주리학에 부합하는 "아정" 재체로 규훈했다. 예를 들어 《척독란언》은 "범수응쇄설지습, 도태무진"이라 성명했고; 《추수현척독》《설홍현척독》등 청대 척독 선본은 거의 완전히 해학 풍자 내용을 척제하고 장중전아한 응수 용어로 전향했다. 이런 단열은 단지 텍스트 내용의 산개만이 아니라 더욱 문화 생태의 전형이다—명대의 다원, 시정, 비판에서 청대의 아순, 정통, 실용으로 전향했다.

결어

송원부터 명 전기까지 상업 출판이 점차 시민 계층을 주체로 하는 대중을 향해 주향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영 계층을 주로 하여 일개 과도 시기에 속했다. 만명에 비록 사상상훈이 전통의 사회 가치 계통을 동요시켜 "만로존상가, 궁수독신신"의 반상 현상이 나타났지만, 담화 권력을 장악한 사신 계층은 여전히 각종 교화 도경을 통해 구유의 가치 계통을 요이불추하게 했다.

만명 사회는 여전히 일개 "구"의 사회이고, 그중 잉육된 "신"의 동서는 아직 그것을 완전히 와해하거나 대체하기에 부족하므로 담화권의 민간화는 단지 전향일 수 있다. 이런 전향은 만명 상품 경제 발흥 하의 시민 문화 굴기의 투사일 뿐 아니라 문학 권력 하이 과정에서 민간 담화 역량의 성장을 절사한다. 그러나 청대 건륭조가 추행한 문화 정치 정책, 특히 민간 척독 선본에 대한 금훼와 규훈은 이 전향의 단열을 조성했다: 조정은 《사고전서》 편찬을 통해 척독 텍스트를 금행하고 그 "문격비약", "유괴아정"을 척하여 최종 문학 담화권이 재도 권력 중심으로 취렴하게 했다.